NEXUS BRIEF · NB-2026-057 · 가계부채·대출

새 대출이 줄어든 분기에 잔액은 왜 50만원 늘었나

신규취급액과 잔액은 분모가 다르고, 대환은 새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함께 만든다

한국은행의 2026년 2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원문과 발표 설명을 대조해 신규취급액·대환·분기말 잔액의 분모와 흐름을 분리했습니다.

발행	2026.08.25	**연번**	2026_57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신규취급액 감소를 가계부채가 줄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신규취급액과 잔액은 대상 차주가 다르고, 대환은 신규취급과 기존 대출 상환을 동시에 만든다. 이번 잔액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담당자의 설명을 인용할 수 있을 뿐, 공개표만으로 신규 유입액과 원금 상환액을 각각 계산할 수는 없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01 연구소의 판단
02 확정된 사실
03 왜 이런 구조인가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6 지금 할 일
07 갈림길
08 함께 읽을 것
09 근거와 검증

2026년 2분기 차주당 신규취급액은 128만원 줄었지만 분기말 잔액은 50만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존 차주의 증액·대환과 상환이 함께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평균을 같은 사람의 대출 흐름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25일 「2026년 2/4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잠정)」를 발표했습니다.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414만원	전분기보다 128만원 감소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2억 829만원	전분기보다 2,110만원 감소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	9,790만원	전분기보다 50만원 증가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잔액	1억 6,193만원	전분기보다 187만원 증가
직전 분기 신규취급액	3,542만원	2026년 1분기
직전 분기 잔액	9,740만원	2026년 1분기말

신규취급액은 2분기에 대출을 새로 취급한 차주의 평균입니다. 잔액은 2분기말에 대출을 보유한 전체 차주의 평균입니다. 분모가 다르므로 3,414만원에서 9,790만원으로 한 사람의 대출이 변했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 담당자는 발표 당일 언론에 신규취급액에는 신규 차주의 대출뿐 아니라 기존 차주의 증액·대환이 포함되고, 이번 감소에는 기존 차주의 취급 규모 축소가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잔액 증가는 분기 중 상환 규모가 전분기보다 줄어 잔액에서 빠지는 금액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인과 설명은 공식 통계표의 산식으로 직접 분해된 값이 아니라 발표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공개된 표에는 신규 진입·증액·대환의 금액과 분기 중 원금 상환액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신규취급액은 처음 빌린 돈만 뜻하지 않습니다. 기존 차주가 한도를 늘리거나 갈아탄 금액도 새로 실행된 대출로 잡힙니다. 따라서 신규취급액 감소는 신규 차주 감소, 증액 축소, 대환 축소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여러 요인의 합일 수 있습니다.

대환은 새 대출을 실행해 기존 대출을 갚는 거래입니다. 신규취급액에는 새 대출이 더해지지만 전체 잔액에서는 기존 대출 상환이 함께 일어납니다. 대환이 줄면 신규취급액은 크게 감소해도 잔액의 순변화는 같은 폭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기말 잔액의 변화는 신규 실행, 원금 상환, 연체이자 원금 편입, 차주 구성 변화 등 여러 흐름의 순효과입니다. 차주당 평균은 차주 수와 구성까지 바뀌므로 전체 대출 총액의 증감과도 같지 않습니다.

DSR과 LTV는 주로 새 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계산하는 규칙입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의 원금이 한 분기에 얼마나 상환되는지는 약정, 만기, 거치 여부와 차주의 실제 상환에 달려 있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처지가 다른 사람을 한 평균에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대출을 받은 사람, 기존 대출을 늘린 사람, 갈아탄 사람, 추가 대출 없이 갚기만 한 사람은 통계에 들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의 대출 잔액이 석 달 사이 50만원 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50만원은 분기말 전체 차주의 평균 변화입니다. 자기 원금 상환액은 거래내역과 상환스케줄에서 확인해야 하며, 두 시점 잔액의 차이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 표는 신규취급액 감소가 40대·수도권·비은행·주택담보대출 부문에서 두드러졌다고 제시합니다. 다만 부문별 평균을 더해 전체 원인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차주가 여러 분류에 동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신규취급액 변화	**-128만원**	3,542만원 → 3,414만원
분기말 잔액 변화	**+50만원**	9,740만원 → 9,790만원
주담대 취급액 변화	**-2,110만원**	2억 2,939만원 → 2억 829만원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신규와 기존의 분해	신규취급액 가운데 신규 진입, 증액, 대환이 각각 얼마인지는 공개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02 · 상환액	분기 중 원금 상환액이 공표되지 않아 잔액 증가 50만원을 유입과 상환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03 · 차주 구성	분기 사이 차주 수와 신규·이탈 차주의 구성이 평균에 미친 영향은 요약표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04 · 인과의 범위	대출규제 영향은 담당자 설명으로 제시됐지만 규제별 효과를 따로 식별한 분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대출별 거래내역에서 원금 상환액, 추가 실행액, 대환으로 상환된 금액을 구분합니다. • 잔액 비교표에는 대출기관·상품·상환방식·만기와 석 달간의 원금 상환액을 함께 적습니다. • 두 시점 잔액의 차이를 실제 상환액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신규 차입과 상환을 합친 순변화입니다.
금융회사	• 대환 견적서에 새 대출 실행액과 기존 대출 상환액, 거래 뒤 남는 총잔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 상환스케줄에 향후 3개월 원금과 이자를 나눠 보여 줍니다.
당국	•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신규 진입·증액·대환의 구성과 분기 중 원금 상환액을 함께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차주당 평균과 전체 잔액 총액, 차주 수 변화의 관계를 같은 표에서 설명합니다.

갈림길

다음 통계에서 신규취급과 상환 흐름이 분리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현재 공개표에는 신규 진입·증액·대환과 원금 상환액의 금액 분해가 없습니다.

A	B
평균만 유지 신규취급액과 잔액이 반대로 움직일 때마다 원인을 담당자 설명에 의존하게 됩니다.	흐름을 분리 공개 신규 진입·증액·대환·원금 상환액을 나누면 규제와 상환의 효과를 같은 분모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한국은행의 다음 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표와 통계설명자료에서 세부 흐름의 추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브리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행정지도로 정하는 이유 ↗

금융제도 DSR과 스트레스 DSR ↗

금융제도 LTV·DTI ↗

금융제도 대환대출 인프라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7건

01	1차 · 2026년 2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414만원, 전분기보다 128만원 감소 한국은행「2026년 2/4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잠정)」 원문 열기 ↗
02	1차 ·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2억 829만원, 전분기보다 2,110만원 감소 위 동일. 공식 발표자료 표 원문 열기 ↗
03	1차 ·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 9,790만원, 전분기보다 50만원 증가 위 동일. 공식 발표자료 표 원문 열기 ↗
04	1차 · 주택담보대출 잔액 1억 6,193만원·전분기보다 187만원 증가, 1분기 신규취급액 3,542만원·잔액 9,740만원 한국은행 2026년 2분기 공식 발표자료와 1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요약 원문 열기 ↗
05	2차 · 신규취급액 감소에는 기존 차주의 증액·대환 축소가 작용했다는 발표 담당자 설명 뉴시스 2026년 8월 25일 보도, 한국은행 가계부채미시통계팀 설명 인용 원문 열기 ↗
06	2차 · 잔액 증가는 분기 중 기존 차주의 상환 규모 축소 영향이라는 발표 담당자 설명 이투데이 2026년 8월 25일 보도, 한국은행 설명 인용 원문 열기 ↗
07	파생 · 신규취급액 -128만원과 분기말 잔액 +50만원 공식 발표의 1분기·2분기 값을 단순 비교. 서로 다른 분모이므로 두 값을 서로 빼지 않음

추적 예정	다음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서 신규 진입·증액·대환과 원금 상환액의 분리 공개 여부, 차주당 잔액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본 연번 NB-2026-071을 실제 공개 순서에 맞춰 NB-2026-057로 바로잡았습니다. 두 시점 잔액 차이를 실제 원금 상환액으로 보던 문장을 삭제하고, 발표 담당자의 인과 설명은 2차 자료로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한국은행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대출의 한도·상환·대환 판단을 권유하지 않으며 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